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불교성지순례 전문

# 佛敎新聞

좋은 여행을 만드는 좋은 여행사
(주)보배여행사
불교성지순례 전문 ☎ 051)463-9100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8년 10월 15일 (2014년 / 단기 4347년 음력 9월22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3049호 수

# 불교 수행법 '걷기' 전국적으로 열풍

## "스스로를 돌아보며, 소통 기회도 만들어"

**'아빠와 함께' 비롯 생명존중 자비나눔 오대산 전나무숲길 제주 '보시의 길' 등**

**교계-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잇따라**

"발걸음마다 깨어있고 아름다운 대지에 발을 딛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세계적 명상가 틱낫한스님이 저서 <틱낫한의 걷기명상>에서 강조한 걷기에 효과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건강과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는 현대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걷기 열풍에 발맞춰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순례길을 조성하거나 걷기를 접목한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8일 '비움과 나눔 108DAY-2014 아빠와 함께 아름다운 밤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불교계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대회는 서울 조계사를 출발해 봉은사까지 14km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청계천, 남산, 한강시민공원을 거쳐 봉은사를 도착해 108배를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대회 참가비는 전액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으로 사용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정옥(법명 수희선, 57)씨는 "걷다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걷기는 자신을 위한 마음 수행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년 걷기대회를 통해 생명존중 사상 및 나눔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으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도 지난 3월 자비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해 남북평화를 기원하고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대산 전나무숲길'로 유명한 제4교구본사 월정사도 매년 숲길 걷기 행사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순례길을 조성해 걷기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곳도 있다. 제주불교성지순례길개장준비위원회는 오는 11월1일 오전9시 제주 보림사에서 '보시의 길' 개장식을 거행한다. 제주불교신문이 제주도관광공사 등과 함께 3년 전부터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제주불교성지순례길은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제주지역 사찰과 유적지,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을 연계해 성지순례 코스로 체계화했다. 이에 앞서 2012년 10월 '지계의 길' 2013년 10월 '정진의 길'이 개장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인욕의 길'과 '선정의 길', '지혜의 길' 등도 개장할 계획이다.

덕숭총림 수덕사를 비롯한 지역 불교계도 충청남도와 함께 예산군 가야사지에서 서산시 보원사지까지 이르는 길을 '백제 미소의 길'로 조성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수덕사에서 천장사까지 이어지는 길을 '경허 깨달음의 길'로 만들어 선지식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도 백범 김구 선생이 머물며 산책하던 것을 되살려 다양한 코스로 구성된 '백범 명상길'을 조성했다. 대흥사 새벽숲길 걷기명상, 영평사 백련꽃길 걷기 및 숲속 명상 등 전국 많은 사찰에서도 걷기와 수행을 위한 길을 조성하거나 걷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과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8일 조계사에서 봉은사에 이르는 '비움과 나눔 108DAY-2014 아빠와 함께 아름다운 밤길 걷기' 행사를 열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 천년고찰 품어 더 빛나는 서울

## 서울시, 전국 첫 '전통사찰 주간' 선포
## 탐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서울시내 전통사찰 58곳의 전통과 문화를 엿보는 체험의 장이 막을 올렸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조계종과 전통사찰 보유 종단이 공동주관하는 '서울시 전통사찰 주간(Week)' 선포식이 지난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시 관내 전통사찰과 사찰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선포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서울시전통사찰보존위원장 정념스님(흥천사 주지),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등 58개 전통사찰의 스님과 신도, 조계사 참배객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최근 들어 정신문화와 여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선대의 수승한 문화를 계승하며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전통사찰들이 자연스레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서울시 전통문화 주간을 통해 서울 곳곳에 살아있는 전통사찰의 가치를 시민과 국민들이 함께 향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인사말에서 "전통문화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인 만큼 전통사찰의 소중한 자산과 문화를 시민과 관광객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 '서울시 전통사찰 주간(Week)' 선포식.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전통사찰 주간은 10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서울시내 58개 사찰을 찾아가는 전통사찰 탐방과 템플라이프,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체험프로그램은 조계사 국화축제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도심 속 전통사찰 버스 투어, 중요무형문화재 126호 진관사 국행수륙대재 참관, 전통사찰 따라 마실길 걷기, 불화장과 함께하는 단청 및 불화그리기 체험, 흥천사 작은음악회 관람 등 전통사찰과 전통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선보였다. 박인탁 기자

##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 오래사세요

햇살이 눈부신 날 산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에 맞춰 걸음이 리듬을 타는 것만 같았습니다. 걷고 또 걸어도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 3시간 가까이 걸었나 봅니다. 산길이 끝나고 마을의 초입이 보였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펼쳐진 들녘 사이 길을 걸으며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런 가을 길이라면 콧노래를 흥얼거려도 흉이 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햇살처럼 가볍게.

마을에 들어서 걷다보니 경로당에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디로 출타를 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무슨 담소를 그리도 정답게 나누시는지,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연신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주름진 입가에 머무는 그 웃음 위에도 그 날은 햇살이 내렸습니다. 주름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을날 투명한 햇살은 늙음까지도 동화로 만드는 놀라운 연출가였습니다.

늙음은 인생이 사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옅은 어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늙음과 햇살은 대조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늙음과 햇살은 대조가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그날 늙음은 아주 순했고 햇살은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강하고 사나운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착하게 빛나는 늙음을 보며 늙는 것도 어쩌면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로당 앞 의자에 앉았던 할머니 한 분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큰 길로 버스를 타러 나가시나 봅니다. 손에는 보따리 하나 들려 있지만 마음속에는 아무 것도 담기지 않은 평화로운 표정입니다. 마치 굽은 허리로는 지나온 시간을 참회하고, 텅 빈 마음으로는 망가졌던 맑은 마음자리를 복원하고 있는 것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늙음이란 지나 온 세월을 참회하는 시간이고, 인생의 맑았던 마음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걸음이기도 합니다. 맑은 마음 한 조각 지니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면 우리는 늙음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익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래 살아야 합니다. 오래 살아서 참회와 비움의 아름다움을 즐겁게 익혀야만 합니다.

남해 염불암

백담사 종립 기본선원 신축학사 개원 3면

社告

## 2015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5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한국불교 문단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불교문학에 관심있는 신진작가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응모기간: 2014년 11월 10일(월)~12월 10일(수)까지
- 응모대상: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모분야
  - -단편소설 부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평론 부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동화 부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시·시조 부문(5편 이내)
- 상 금:
  - -단편소설 500만원
  - -평 론 300만원
  - -동 화 300만원
  - -시·시조 300만원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선작 상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 선정
*관련법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 당선작발표: 2015년 1월 1일 신년특집호 (당선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 유의사항
  1. 겉봉투에 신춘문예 현상공모작품(응모분야)임을 명기해주십시오. 서류봉투에 담아 접수 바랍니다. (일반우편봉투 접수 불가)
  2. 기 발표 원고 및 표절, 타 신문이나 잡지에 중복 응모된 작품임이 밝혀지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3.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 작품에 한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수상작에 대한 판권은 본사가 소유합니다.
  5. 맨 첫장에 작품과 별도로 응모분야, 인적사항(본명, 나이, 주소, 연락처)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품내용 안에 이름 등 인적사항 명기하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6.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응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접수시 한국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bud22@ibulgyo.com)
- 문 의: (02)730-4489(신춘문예 담당)

10·27법난 제34주년 기념법회

지난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 사건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 최대의 수난사이자 한편으로는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전 국민적 저항의 불씨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전국 5천여 개 사찰을 군화발로 짓밟고 2천여 명의 스님과 불교신도들을 연행하여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했던 대표적인 탄압사례였던 '10·27법난'이 벌어진지도 벌써 34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10·27법난'의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불기2558(2014)년 10월 27일(월) 오후 2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문의 | 02)2011-182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